

#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5월 1일  
제1894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도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요한 21,12-14)



〈Meal of Our Lord and the Apostles〉, James Tissot

## 부활 제3주일 (다해)

**제 1 독서** 사도 5,27L-32.40L-41 |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화답송** 시편 30(29) |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제 2 독서** 묵시 5,11-14 | 살해된 어린양은 권능과 부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복음** 요한 21,1-19 <또는 요한 21,1-14>  
예수님께서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주셨다.

## 예수님께서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주셨다.

그때에<sup>1</sup> 예수님께서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sup>2</sup>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 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래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대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sup>3</sup>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sup>4</sup>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sup>5</sup>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sup>6</sup>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 올릴 수가 없었다.  
<sup>7</sup> 예수님께서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겂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 들었다.  
<sup>8</sup>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물에서 백 미터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sup>9</sup> 그들이 물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sup>10</sup>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sup>11</sup>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물로 끌어 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백선세 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sup>12</sup>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sup>13</sup> 예수님께서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sup>14</sup>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 복음 묵상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어찌지 제게는 어정쩡해 보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으니, “네! 사랑합니다.” 하면 될 것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돌려 말하고 있을까요?

언젠가 예수님께서서는 수난과 죽음의 시간이 닥쳐오면 제자들이 당신을 버리고 모두 떠나갈 것이라고 예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모두 스승님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마태 26,33).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다짐하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요한 13,37)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던 베드로였건만, 결국 예수님께서서 잡혀가시자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잡아뭍니다. 자신의 말이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까지 하며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마르 14,66-72 참조).

그래서였을까요? 베드로는 당신을 사랑하는지 물으시는 예수님께 더 이상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하고 스승을 배반하기까지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만은 제발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서는 기꺼이 당신의 양 떼를 맡기십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언제나 부족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의 두 손에 주님께서서는 교회와 이 세상의 미래를 맡기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힘을 내어 오늘도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어 봅시다. <박문수 막시미노 신부>

## “하느님 자비는 타인의 고통에 마음을 열게 합니다”

“삶이 신앙을 속이는 것처럼 보이는 힘겨운 순간이 있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토마스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 그분의 자비를 다시 발견하는 것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압도적인 증거를 앞세우시거나 의기양양하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거창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대신 따뜻한 자비의 표징을 제시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상처를 내보이십니다. 우리는 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진 적이 있는지 자문해 봅시다. 상처 입은 몸이나 지친 영혼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적이 있는지,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고, 동행하고, 위로하기 위해 시간을 낸 적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과 마주칩니다. 그분께서는 삶의 시련을 겪는 이들의 눈으로 우리를 자비롭게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미사〉

〈전문 보기 : <https://www.vaticannews.va/ko/pope/news/2022-04/papa-francesco-omelia-messa-domenica-divina-misericordia-pace.html>〉

### 교황님의 5월 기도 지향 젊은이들의 신앙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생애에서 경청하는 법, 깊은 식별, 신앙이 싹틔운 용기, 헌신적인 봉사를 배우도록 기도합니다.



## 5월 성모성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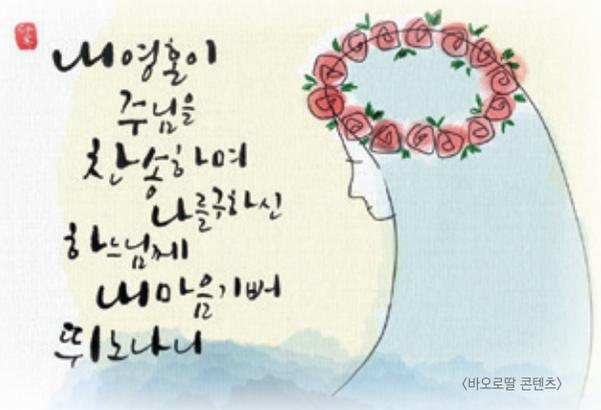
교회는 해마다 5월을 성모 성월로 지낸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믿는 이들의 어머니이시며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분에 대한 신심을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이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인간은 초자연적인 생명을 잃었으나 주님의 구속 사업으로 이를 되찾게 되었다.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 마리아께서는 주님의 이러한 구속 사업에 온전히 협력하셨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구세사 안에서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으셨던 것이다.

마리아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잉태되시는 순간부터 하느님의 은총으로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시어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신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을 낳으시기 전뿐만 아니라, 낳으실 때에도 그리고 그 뒤에도 평생 동정이다. 또한 하느님께서서는 마리아께서 죄의 결과인 죽음을 겪지 않게 하시려고 하늘에 불러올리셨다.

성모 마리아를 온 인류의 어머니이시며 교회의 어머니로 공경하는 교회는 전례주년을 통하여 구세사를 기념하는 동안 성모 마리아의 축일을 지내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구하여 주시기를 청한다. 그런데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은 하느님에 대한 흠숭과는 다르다. 곧 성모님께서서는 우리 신앙인의 모범으로,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으신 성인 중의 성인으로 특별한 공경을 받으시는 것이다.

교회는 이 시기에 묵주 기도와 성모 성월 기도를 자주 바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각 본당 공동체는 5월의 어느 날을 정하여 성모상을 아름답게 꾸며 놓고 ‘말씀 전례’를 중심으로 ‘성모의 밤’ 행사를 하고 있다.



〈바오로딸 콘텐츠〉

**1 구역임원 교육**

• 일시 : 5월 1일(일) 오전 11:40 (B-3,4)

**2 단체부 홍보의 날**

• 일시 : 5월 1일(일) 오전 8시, 10시, 오후 2시 미사 후  
 • 장소 : 친교실  
 • 각 단체들은 홍보를 위한 준비를 해 주시고, 신자분들은 1인 1단체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3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5월 1일(일) 오후 1시 (B-3,4)

**4 파티마 세계 사도직 첫 토요 신심 기도 및 미사**

• 일시 : 5월 7일(토) 오전 10:30 (첫 토요 신심 미사)  
 • 파티마 사도직 기도회는 오전 9시에 있습니다.  
 • 토요 신심 미사로 토요일 새벽 미사는 없습니다.

**5 기도로 힘을 얻어 삶으로 전교하자 제83차 예비신자 모집**

• 입교식 : 5월 8일(일) 오전 8:30 (하상관 #110)  
 • 등록 : 매 주일 선교부 테이블(오전 8시, 10시 미사 후)  
 • 문의 : 이인표 가브리엘 (703)851-2364  
 • 미사 퇴장 성가는 "선교를 위한 노래"를 부르고 이어서 "선교를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6 유아 세례**

• 일시 : 5월 14일(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 ME 주말 부부**

• 일시 : 5월 28일(토) 오후 7시 - 30일(월) 오후 5시까지  
 • 장소 : 헌팅톤 수도원(롱아일랜드, 뉴욕) • 접수 : 친교실  
 • 문의 : 김영술(아놀드), 레지나 부부 (703) 477-2435

**8 2022 CYO WorkCamp Contractor 봉사자 모집**

• 봉사 기간 : 6월 19일(일) - 6월 24일(금)  
 • 알링턴 교구 WorkCamp에 함께 봉사할 컨트랙터를 구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권용우 스테파노 (571)244-0333  
 사무실 (703) 968-3010

**9 CYO WorkCamp 기금을 위한 Car Wash**

• 일시 : 5월 1일(일)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 장소 : 하상관 주차장  
 • 가격 : \$15 (도네이션도 받습니다)  
 • 미사중에 주차해 주시면 세차해 드립니다.  
 •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월은 성모성월 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마음을 모아 도움을 청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로 세상이 구원받게 하셨으니 우리도 순종과 사랑으로 지내는 성모성월이기를 기도합니다.

**성모 성월 기도 (마리아의 노래)**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기도합니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4월 24일(부활 제2주일)**

주일 헌금	\$ 6,900.00
교무금	\$ 7,780.00
교무금(신용카드)	\$ 2,460.00
2차 헌금	\$ 3,006.00
감사 헌금	\$ 170.00
온라인 봉헌	\$ 2,050.00
<b>합계</b>	<b>\$ 22,366.00</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5월 5일(목) 오후 5:00-6:00  
 5월 6일(금) 저녁 8:00-9:00  
 5월 8일(일) 오전 6:00-7:00

1. 원주교구 조규만 주교님 강론
2. 특강 : 김진태 안드레아 신부님의 "하느님의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10) - 고딕의 재현 '신 고전주의' 양식

**그리스도인 정신의 생활화 이웃사랑을 실천합시다**

- ♥ 성당 주변(Rippling Pond Dr.) 이웃들의 정원에 쓰레기나 음료수 빈캔 등을 버리지 마세요.
- ♥ 새벽 미사 참석 시, 저속 운행(15마일)과 성당 방향으로 주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알링턴 교구 설정 50주년**  
 1974 - 2024

Year One(2021.11.21 시작) **"Remember"**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구의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합니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b>주일미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0 AM</li> <li>• 10:00 AM(교중미사)</li> <li>• 2:00 PM(학생미사)</li> <li>• 5:00 PM(청년미사)</li> </ul>
<b>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b>	• 7:30 PM
<b>월, 목, 토</b>	<b>화, 금</b> <b>수</b>
• 6:00 AM	• 7:30 PM      • 11:00 AM

**감사드립니다.**

장터 한마당에 함께 해 주신 모든 신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